

「제1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17회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에도 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월 9일(수)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우수상	빈집의 공간적 군집과 고착화에 관한 실증 연구: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한수경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후연구원	상금 100만 원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과 공유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차수요를 중심으로	장창호 장재용 송재민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학부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부교수	

「제1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우수상으로 선정된 한수경의 “빈집의 공간적 군집과 고착화에 관한 실증 연구: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의 쇠퇴와 축소 그리고 국가인프라 최소기준 등 포용도시의 국내외적 추세에 적절한 논문 주제이다. 빈집의 군집 특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빈집의 고착화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물리적·사회경제적·인구학적 시각에서 빈집의 특성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정책적 디테일과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연구이다. 현장 조사와 사례분석 그리고 로짓모형 등 다양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우수하다. 향후 국가의 재생 및 포용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장창호, 장재용, 송재민의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과 공유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차수요를 중심으로” 논문은 자율주행차량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래도시 공간, 특히 주차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공간가용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자율주행시대가 교통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특히 자율주행의 미래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소유와 이용행태와 관련된 8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한 점과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공간가용성을 제시하는 등 자율주행과 도시를 연계한 연구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통하여 시나리오별 주차수요를 분석하고 주차자족률을 통하여 지역별 실질적인 공간가용성을 분류하는 등 연구방법과 결과도출과정이 논리적이고 적절하였다. 향후 자율주행시대의 본격 도래에 대비하여 교통·도로분야뿐 아니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비하는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